

덴마크, 식품수급 및 식품산업 동향

김 정 섭*

덴마크는 유럽에서도 유기농산물 소비 비중이 매우 큰 나라이자 축산 강국이다. 곡물, 우유 및 유제품, 육류, 어류 등을 중심으로 덴마크의 식품 수급 현황을 살펴본다.

1. 덴마크의 식품 소비 구조

2004년 기준으로, 덴마크 인구는 약 540만 명이었다. 그 중 15세에서 49세 사이 연령층 인구가 46.7%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9%이다.

2005년 기준으로 덴마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EU 25개 국가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구당 식품 소비지출 비중은 EU 25개 국가 평균치인 13.1%보다 낮은 12.5%이다.

최근 덴마크의 식품 소비 패턴은 전체적으로 고칼로리 가공 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서구 선진국의 전형적인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EU 회원국들 중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empal.com 02-3299-4252

표 1 덴마크의 연령별 인구 분포

연령층	비율(%)
0~14세	18.9
15~24세	11.0
25~49세	35.7
50~64세	19.6
65~79세	10.9
80세 이상	4.0
총인구	539만 8000명

자료 : Eurostat

표 2 덴마크의 1인당 구매력 기준 GDP 수준과 식음료 가계지출 비중

국가	1인당 GDP	가계지출 중 식음료 지출 비중 (주류 제외)
EU-25개국	100.0	13.1%
EU-15개국	108.6	12.8%
유로화 통용지역 12개국(Euro-zone)	105.9	13.7%
덴마크	121.8	12.5%

자료 : Eurostat

주 : 1인당 구매력 기준 GDP 지수는 EU-25개국 평균값을 100.0으로 조정.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 단백질, 설탕 등이 특히 풍부한 전통적인 덴마크식 식단이 수명 저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공공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설탕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버터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리하여 덴마크의 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과일, 채소, 올리브유, 어류 등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지향하며 동물성 지방과 육류 섭취량은 줄여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파스타, 토마토 부산물, 신선 채소, 올리브유, 신선 어류, 수입산 특산식품 등의 소비량이 특히 주요 도시 지역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육류, 훈제 어류, 동물성 지방, 덴마크의 지방 특산 식품은 점점 인기를 잃고 있다.

2. 덴마크의 식품 유통 구조

최근의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으로 덴마크에는 1,094개의 슈퍼마켓과 식품매장을 갖춘 189개의 하이퍼마켓이 있다. 덴마크의 식품 유통 부문은 매우 높은 수준의 집중화 경향을 보인다. 덴마크에서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재는 주로 다섯 개의 소매 조직을 통해 유통된다. 이 다섯 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5.6%에 달한다. 다섯 개의 소매 조직은 다음과 같다.

- COOP Denmark(Danish COOP 소속 조직)
- DANSK SUPERMARKED
(덴마크의 주요 민간기업 중 하나인 A.P.Møller AS의 소매담당 부서)
- SUPER GROS A/S(570개 이상의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구매 센터)
- Edeka(슈퍼마켓 및 미니마켓 체인)
- Aldi
(할인점 체인 Aldi를 통해 영업 중이며 덴마크 내에 230개 매장 확보)

2003년 기준으로 덴마크의 식품 유통 부문 집중화 지수(CR-3 index)는 78%에 달하고 있다.

3. 식품산업 구조

다음은 주요 식품별로 덴마크의 식품 산업이 보이는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에 대한 내용이다.

3.1. 곡물

2003년 기준으로, 소매 매장과 급식 서비스 시장에 공급된 곡물의 판매액은

각각 91.5%와 8.5%였다.

2005년 현재,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이 전체 시장 판매액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업체 브랜드 상품과 장인생산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25.0%와 14.8%였다. 덴마크의 밀가루 및 빵 종류 상품 시장은 CR-3 지수가 49.7%로 매우 집중화되어 있다. 상위 9개 기업 외에도, 16개의 기업과 아주 많은 수의 장인들이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위 10위 이하 16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16.7%이며, 장인들의 시장 점유율은 14.8%이다. 이 부문에서는 다국적기업이 매우 중요하다. 다국적 기업인 Svenska Lantmannen Riksförbundet와 Barilla가 선두주자이다. Danone과 Sara Lee 또한 중요한 기업이지만 앞의 두 기업보다는 그 시장 점유율이 낮다.

표 3 덴마크 밀가루와 빵 종류 상품 시장 수요, 2003년

	물량		금액	
	1000톤	비중(%)	100만 €	비중(%)
소매 시장	495.7	91.3	1985.1	91.5
급식 서비스 시장	47.0	8.7	185.5	8.5
전체 시장	542.7	100.0	2170.6	100.0

자료: Food For Thought

표 4 덴마크의 밀가루 및 빵 종류 상품 시장 집중화 정도

기업	시장 점유율(%)	누적 시장 점유율(%)
Svenka Lantmannen Riksförbundet	25.2	49.7
Barilla	12.4	
Dansk Biscuit Co.	12.1	
Kohberg	6.4	
Danone	3.2	
Coronet Cake	3.0	
Jut. 2141	2.3	
Orkla	2.0	
Sara Lee	1.9	
그 밖의 16개 기업	16.7	68.5
장인생산	14.8	
		100.0

자료: Food For Thought

3.2. 우유 및 유제품

2003년에 소매시장과 급식시장에서의 우유 및 유제품 판매액 비는 각각 92.5%와 7.5%였다.

2005년 기준으로,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71.2%로 매우 높았다. 이에 비해 유통업체 브랜드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23.3%였다. 장인생산 상품과 브랜드 없는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2%와 2.4%로 매우 낮았다. 덴마크의 우유 및 유제품 시장도 곡물부문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CR-3 지수가 76.8%였다. 상위 9개 기업 외에도 10개의 기업이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의 시장 점유율은 9.2%이다. 장인생산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3.2%이다. 이 부문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

3.3. 육류

2003년 기준으로 소매시장에서의 육류(신선육류 및 가공육류 전체) 판매액은 전체 시장 판매액의 86.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3.6%가 급식시장에서 판매되었다.

표 5 덴마크 우유 및 유제품 시장 수요, 2003년

	물량		금액	
	1000톤	비중(%)	100만 €	비중(%)
소매 시장	735.8	91.7	1691.4	92.5
급식 서비스 시장	66.2	8.3	136.3	7.5
전체 시장	802.0	100.0	1827.7	100.0

자료: Food For Thought

표 6 덴마크의 우유 및 유제품 시장 집중화 정도

기업	시장 점유율(%)	누적 시장 점유율(%)
Arla Foods	61.4	76.8
Danæg	8.8	
Dan나 Ost	6.6	
Tholstrup	5.2	
Uhrenholt	2.0	
Bornholms Andelsmejeri	1.4	
Lactalis	1.1	87.6
Dat-Schaub	0.6	
Bel	0.5	
그 밖의 10개 기업	9.2	100.0
장인 생산	3.2	

자료: Food For Thought

표 7 덴마크 육류 시장 수요, 2003년

	물량		금액	
	1000톤	비중(%)	100만 €	비중(%)
소매 시장	396.0	82.7	3514.6	86.4
급식 서비스 시장	82.8	17.3	553.3	13.6
전체 시장	478.8	100.0	4067.9	100.0

자료: Food For Thought

표 8 덴마크의 육류 시장 집중화 정도

기업	시장 점유율(%)	누적 시장 점유율(%)
Danish Crown	50.8	62.2
Spira Interrssenter	7.8	
Harboe Farm	3.6	
Rose Poultry	2.9	
Defco	2.6	
Jens O Christiansen	2.6	
Skare	1.6	74.7
Rieber	1.5	
Jensen	1.3	
그 밖의 25개 기업	20.7	
장인생산	4.6	100.0

자료: Food For Thought

2005년 현재,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의 육류시장 점유율은 47.8%로서 브랜드가 없는 상품의 시장점유율 29.4%보다 훨씬 높다. 유통업체 브랜드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18.2%를 기록했다. 한편, 장인생산 육류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4.6%에 불과했다. 덴마크의 육류 시장은 매우 집중화되어 있는데, CR-3 지수가 62.2%였다. 이 시장에서는 상위 9개 기업 외에도 25개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은 20.7%이다. 장인생산 경영체의 시장 점유율은 4.6%를 차지하고 있다.

3.4. 어류

2003년, 덴마크 소매시장과 급식시장에서의 어류 판매액 비율은 각각 74.1%와 25.9%였다.

2005년 현재, 제조업체 브랜드 어류 상품은 전체 시장을 53.7% 정도 점유하고 있다. 브랜드가 없는 상품과 유통업체 브랜드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3.7%와 12.6%이다. 덴마크 어류 시장의 CR-3 지수는 48.2%로 상당한 수준의 집중화 정도를 보이고 있다. 상위 10개 기업 외에도 17개의 기업들이 어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26.6%이다.

표 9 덴마크 어류 시장 수요, 2003년

	물량		금액	
	1000톤	비중(%)	100만 €	비중(%)
소매 시장	63.9	73.4	739.7	74.1
급식 서비스 시장	23.1	26.6	258.3	25.9
전체 시장	87.0	100.0	998.0	100.0

자료: Food For Thought

표 10 덴마크의 어류 시장 집중화 정도

기업	시장 점유율(%)	누적 시장 점유율(%)
Royal Greenland	16.8	48.2
Gilde Buy-Out Fund	16.6	
Aker RGI	14.8	
Orkla	10.5	
Sorensen	3.2	
Investor/EQT	2.7	
Dat-Schaub	2.4	
Nutreco	2.2	
Polar Seafood	2.1	
Pan Fish	2.1	
그 밖의 17개 기업	26.6	100.0

자료: Food For Thought

4. 농업생산구조

2003년에 모든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업구조 조사’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에는 최소 1ESU(European Size Unit=1,200유로) 이상의 경영규모를 가진 농업 경영체가 4만 8,600개 정도 있다. 이 농업 경영체들이 경작하는 농지 면적은 약 270만 ha이며, 평균 경지규모는 54.7ha이다. 100ESU를 초과하는 규모를 갖춘 농업 경영체가 1만 1,900개로 전체의 24.5%를 차지한다. 100ESU 이상 규모의 농업 경영체들이 이용하는 농지 면적은 171만 7,000ha이다. 이것은 전체 농경지 면적의 60%에 달한다.

규모가 큰 농업 경영체(100ESU 초과)의 경영주들 중 75% 이상이 55세 미만 연령층이다. 한편, 작은 규모의 농업 경영체들에서는 55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11 덴마크의 농업 경영체 현황

	경영규모(단위: 1ESU)							전체
	<1	1-4	4-8	8-16	16-40	40-100	>100	
경영체 수(단위: 1000개)	0.0	2.6	7.1	8.4	10.0	8.6	11.9	48.6
비율(단위: %)	0.0	5.3	14.6	17.3	20.6	17.7	24.5	100.0
경지면적 계 (단위:1000ha)	0.0	21.3	71.2	149.5	353.8	579.6	1717.1	2892.5
비율(단위: %)	0.0	0.7	2.5	5.2	12.2	20.0	59.4	100.0

자료: Eurostat

축산 농가를 살펴보면, 100ESU를 초과하는 규모를 갖춘 농가들이 사육하는 가축의 수가 360만 두 이상이다. 즉,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농가들 중 23.4%가 초지에서 방목하는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경영규모를 갖춘 농가들이 초지 방목을 하는 경향이 더 크다. 100ESU를 초과하는 규모의 농장들만을 볼 때, 평균 가축 사육두수는 약 350두이다.

표 12 덴마크의 축산 경영체 현황

	경영규모(단위: 1ESU)							전체
	<1	1-4	4-8	8-16	16-40	40-100	>100	
사육두수 계(단위: 1000두)	0.1	11.2	34.3	62.0	177.5	609.6	3646.5	4541.2
비율(단위: %)	0.0	0.2	0.8	1.4	3.9	13.4	80.3	100.0
초지 방목률(단위:%)	100.0	97.0	91.0	81.7	56.0	41.5	23.4	-
경영체 당 평균 사육규모 (단위:LSU)	20.7	6.5	8.6	13.3	30.3	95.1	95.1	356.2
경영체 당 평균 방목 사육 규모(단위: LSU)	20.7	6.7	9.1	13.6	26.43	75.2	75.2	243.8

자료 : Eurostat

주 : LSU는 Livestock Unit

표 13 덴마크의 농업 경영체 수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경영규모(단위: 1ESU)							전체
	<1	1-4	4-8	8-16	16-40	40-100	>100	
경영주 수(단위: 1,000명)	0.0	2.6	7.0	8.3	9.9	8.5	11.6	47.9
비율(단위: %)	0.0	5.4	14.6	17.3	20.7	17.7	24.2	100.0
[경영주 연령분포 비율, %]								
35세 미만	11.1	6.1	7.4	6.7	6.7	7.1	13.1	
35-44세	33.3	24.7	22.9	22.0	20.0	23.7	34.6	
45-54세	0.0	26.7	26.2	26.0	24.7	27.3	27.6	
55-64세	0.0	22.6	21.7	19.5	26.2	31.6	20.1	
65세 이상	55.6	19.9	21.9	25.7	22.4	10.3	4.6	

자료 : Eurostat

주 : LSU는 Livestock Unit

전체적으로 볼 때, 덴마크의 농업 부문은 전형적인 선진국형 농업의 특징을 보인다. 경영규모가 큰 농가들이 농업 부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며 활력을 낳는 주체이다. 덴마크의 농업생산 구조는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 경영규모가 큰 경영체들이 농지나 가축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식품공급사슬 내의 조정 메커니즘과 수직적·수평적 관계

5.1. 수평적 관계

덴마크 식품 유통 부문 주체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살펴본다.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기업집단인 COOP Denmark가 그 주된 경쟁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COOP Denmark는 식품 유통 부문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덴마크 식품 유통 부문의 특징은, 주도적인 대형 소매업체가 협동조합 계열 기업이라는 점이 있다.

앞에서 제시한 주요 식품 분야별 집중화 정도를 살펴보면, ‘우유 및 유제품’과 ‘육류’의 두 부문에서 주도적인 기업들이 상당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주요 경쟁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보다 7~8배 높은 수준이었다. 이 두 부문에서 주도적인 기업들은 확실히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곡물 부문은 상대적으로 덜 양극화되어 있다.

농업 생산자들 간의 수평적 조율은 덴마크에서 오래된 전통이다.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덴마크의 우유, 유제품, 육류(특히 돼지고기) 공급 사슬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공급사슬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평적 조율 관계가 출현하고 있다.

협동조합원으로서 농업인은 생산한 농축산물 전체를 조합에 공급할 의무가 있다. 개별 협동조합들은 스스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갖추고 있다. 이에 관한 국가 수준의 법규는 없다. 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가능한 최상의 가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5.2. 수직적 관계와 조정 메커니즘

‘우유 및 유제품’과 ‘육류’의 두 부문 공급사슬에서도 특히 가공 단계의 주도적인 기업들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소매유통업체들의 시장 교섭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생산 단계에서의 수평적 조율 관계들이 널리 확산되어 있고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유통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후방 단계의 주체들이 갖고 있는 시장 교섭능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편이다. 다음은 몇 가지 인상적인 덴마크의 수직적 조율 사례이다.

‘덴마크 낙농위원회(The Danish Dairy Board)’는 덴마크의 낙농기업들과 우유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산업간 연합회이다. 총 30개의 기업들이 이 연합회의 회원이다. 그중에서도 협동조합 계열 기업들이 덴마크의 유제품 제조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돼지고기 공급사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도축되고 가공되고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90% 이상을, 양돈 농업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계열 기업들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가공이나 여타의 관련 산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The Danske Slagterier’ 협동조합 그룹은 Danish Crown과 TiCan이라는 두 개의 협동조합형 도축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Danish Crown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축 기업이며 덴마크 시장의 선두 주자이다. 연간 1950만 두의 돼지를 도축한다. 이는 덴마크의 협동조합 계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돼지의 89.5%에 해당한다. 1만 2,000명의 조합원 축산 농업인들이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덴마크 국내 및 해외에서 약 2만 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TiCan 도축장은 매년 110만 마리의 돼지를 도축한다. 약 700명의 양돈 농업인들이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1,000명 정도이다.

참고자료

<http://foodqualityshemes.jrc.es/en/index.html> (EU 집행위원회 연합연구센터) 발
췌 정리